

# 동화내용을 인지한 아동이 지각한 친부모상 및 계부모상의 차이

—콩쥐팍쥐, 장화홍련, 신데렐라 및 백설공주를 중심으로—

A Study on Parent- and StepParent-Figure Percieved by Korean Children with the Knowledge about the related Fairytales.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 유안진

Dept.of Consumer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Anjin Yoo

## 〈목 차〉

- |                   |            |
|-------------------|------------|
| I. 연구문제의 제기       | IV. 연구방법   |
| II. 연구문제          | V. 결과및 해석  |
| III. 관련연구결과및 문헌고찰 | VI. 결론및 제언 |
|                   | 참고문헌       |

## 〈Abstract〉

Generally fairytales are recognized as very effective educational materials. However, some of them includes negative prejudices on stepparents, especially stepmother. These contents are very harmful to development and adjustment of children in remarried families. Moreover, not so many studies have been done that even the results were insufficient to not only practical but also academical needs. Therefore this study purposed to investigate the parent-and stepparent-figures perceived by children with the knowledge about the related fairytales. Specific research problems are as follows;

1. How many children do know the contents of the 4 related fairytales such as Snow White, Sindellera, Kongjui Patjui and Changwha Honglyun?
2. What are the parent-figures perceived by the children with the knowledge about the 4 traditional fairytales?
3. What are the stepparent-figures of the subjects?
4. Is the children's sex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 in their parent-and stepparent-figures?
5. Is the children's ag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e in their parent-and stepparent-figures?
6. Is the their parents'educational level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 in their parent-and stepparent-figures?

175 boys and girls of age- 9 and- 11 were selected from 2 primary schools in Seoul. All of them were from normal families. As the steadyselling books, 18 fairytales were chosen by 7 booksellers of large scale bookstores in Seoul. And then by 10 teachers and 10 literay persons, 4 Korean and foreign traditional fairytales were seleded at last. The questionnaire of 5 subareas was developed and used as the research tools, in which included 40 items. SPSS/pc program were used for data analysis for frequency, percentile, mean, and t-test.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with cronbach  $\alpha = .80$  and  $.94$  parent- and stepparent-figures respectively. 1) The contents of the 4 tradional fairytales were read already or wellknown, even if the children who didn't. 2) The subjects showed very positive their own parent-figures such as sweet, lovely, reliable, and true or good person. 3) The subjects showed very negative stepparent-figures in contrast. 4) They showed significant sex difference( $p < .05$ ) in their own parent-figures. And girls were more positive than boys who were a little more positive(on insignnificant level) than girls in stepmother-figures. 5) All the subjects had positive parent-figures and negative stepparent-figures. 6) Their parents education level was no significant variable in the prediction of their parent-and stepparent-figures.

## 1. 문제의 제기

동화는 음성 글자 그림 및 기타 매체로 접하는 이야기로서 아동이 주대상인 문학의 한 장르이다. 가정과 아동교육기관에서 자주 사용되는 교육자료인 동화는 인간특성의 기초형성기인 아동기에 접하게 되어,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및 도덕적 발달 등 거의 전인적 발달에서 기초적 틀을 형성 발달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상당한 동화에는 부정확한 지식 정보 편견 등도 포함되어 비교육적 문제가 되며(최운식, 김기창, 1988), 이를 교정하는 노력(서울대학교 아동학연구실원, 1993, 1994; Ingrassia, Springen, & Wingert, 1994)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꾸준히 팔리는 동화에는 부정적 계모-계녀관계도 포함되어, 긍정적 계부모-계자녀관계 형성을 방해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가정현황(통계청, 1994)에 의하면, 1981년의 혼인 1천쌍당 이혼율 0.63%가 1992년의 1.31%로 증가했고, 1972년의 혼인 21쌍당 이혼 1쌍이, 1992년에는 혼인 7쌍마다 1쌍꼴로 급증했다. 또 이혼까지의 동거기간도 8.4년으로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보다 짧게 나타났다. 이렇듯 급증되는 가족해체현상은 재혼가족형성의 필요성이 된다는 점

에서 이들 동화내용은 더욱 우려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이래 가족관계가 연구되어 왔으나, 재혼과 재혼가족연구는 매우 부진했다. 그 이유는 재혼비율이 극소한 탓도 있으나, 재혼이나 재혼가족관계에 대한 관심부족, 특히 열녀는 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라는 여성모델의 지향이 묵시적으로 강요되어온 사회문화(유안진, 1991)에서 여성재혼을 죄악시했던 가부장제 가족의 전통문화도 원인일 수 있다(임춘희, 1994). 그러나 계부모가정 아동은 성역할 발달, 지적, 사회적 적응에서 편친아동보다 우수하다는 연구결과(Hamilton, 1987:29~42)도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재혼과 재혼가족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계부모-계자녀간 적응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체로 계부모 역할은 친부모보다 더 어려운데, 계부모와 계자녀 및 기타 가족의 기대가 상이하여 역할갈등이 야기되기 쉽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인정되고 있다. Coleman과 Coleman(1990)은 <의붓, step- >에 대한 일반적 부정적 편견도 계부모의 역할수행을 어렵게 한다(임춘희, 1994에서 재인용)고 했다. 계부모에 대한 계자녀의 태도는 자녀의 연령 성별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권영례, 유안진, 1993:101). 즉 대체로 저연령 아동보다 고연령 아동

이, 또 여아가 남아보다 계부모와의 관계에서 덜 적응적이라고 한다. 특히, 계모에 대한 여아의 태도는 고연령일수록 더욱 부정적이기 쉬운데, 아마도 부정적 계부모상을 포함한 전래동화나 구전민담에서 주로 여아가 피해자인 주인공이었다는 점도 작용했으리라고 본다. 특히 아동이 소속된 사회문화가 혈연 중심적 가족응집력을 강조할수록, 전통적 가족가치를 강조할수록, 계부모와의 적응이 곤란하다고 알려져 있다. 혈연과 가족응집력이 덜 강조되는 미국보다 한국의 계부모-계자녀 관계가 더 심각하게 예견 인식되는 이유도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서양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이혼과 재혼을 규범적, 적응적으로 접근하여, 재혼후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친밀성을 연구해 왔다(임춘희, 1994에서 재인용). 계부-계자녀가 계모보다 적응적관계로 밝혀져 오는데, 이는 계모가 계자녀 양육을 더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Ambert, 1986). 또 계부와 동거하는 청소년이 편모와 동거하는 청소년보다 자존감이 더 높고 사회적 문제행동도 적으며, 여학생의 경우 학업 성적이 더 좋고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연구보고(Fine & Kurdek, 1992)도 있다. 계부모-계자녀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부부의 재혼 만족도는 높고 부부 갈등은 적다(Coleman & Coleman, 1990)고 밝혀졌다. Hamilton(1987)도 여러 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계부모가정의 계자녀는 편친가정자녀보다 성역할, 지적, 정서적 및 사회성과 도덕성의 발달도 훨씬 양호하다고 보고하면서, 계부모-계자녀 관계가 일반적 인식처럼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계부모상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의붓아비 아버지, 의붓어머니 어머니'가(원영섭, 1993)등, 계부모에 대해 반감, 냉대 불신 등의 속담이 잔존하고 있고, 콩쥐팥쥐, 장화홍련 등이 태어난 전통혈연강조문화가 잔존하고 있으며, 더구나 백설공주,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등 외국전래동화의 유입까지 첨가되었다. 이러한 3중 영향에다 국내의 관련동화는 꾸준히 팔려 읽히고 있어, 시대추세에 역행되는 편견은 4중

강화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이 연구는 꾸준히 팔리는 편견관련 동화내용을 인지한 아동이 지각한 친부모 및 계부모상을 밝혀, 가정과 학교의 아동상담과 지도, 아동교육용자료개발기관, 연구소, 및 아동학연구분야 등에 실제적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려 한다.

## II. 연구문제

이런 목적에서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1. 백설공주, 신데렐라, 콩쥐팥쥐 및 장화홍련을 읽었거나 못읽어도 그 내용을 인지한 아동은 얼마나 되는가?
2. 관련 동화내용을 인지한 아동이 지각한 친부모상과, 친부 및 친모상은 어떠한가?
3. 관련 동화내용을 인지한 아동이 지각한 계부모상과, 계부 및 계모상은 어떠한가?
4. 관련 동화내용을 인지한 아동의 친부모상과 계부모상지각에는 유의한 성차가 있는가?
5. 관련 동화내용을 인지한 아동의 친부모상과 계부모상 지각에는 유의한 연령차이가 있는가?
6. 관련 동화내용을 인지한 아동이 지각한 친부모상과 계부모상은 부와 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III. 관련연구결과 및 문헌고찰

### 1. 동화의 개념 및 기능

#### 1) 동화의 개념

동화는 일반적 개념과 전문적 개념규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보다 광의의 사전적 개념은 동화를 아동문학의 한 장르로 아동을 주상대로 동심으로 기초로 한 이야기이며, 그 내용은 공상적, 서정적, 교훈적(한국어사전 편찬회, 1991)인 것이 많다. 문예대사전(1962)에는 동화(Märchen)란 '소규모의 설화'란 뜻으로 협의의 동화(Kindermärchen)에 민중에게 읽혀지는 소설 및 우화까지 포함한 산문형 서사문학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전문적 정의(박화목, 1990; 이재철, 1983; 최지훈, 1981)는 보다 구체적이어서, 이재철

(1983)은 옛날 이야기, 민담, 우화, 신화, 전설등을 재구성, 개작하거나 또는 그런 특징을 동화로 포용한 문학의 한 장르로서 시 정신이 잠재되어 있다고 했다. 박화목(1990)도 동화의 원형은 민담으로서 신화, 전설, 우화 등의 설화문학이 구전되면서 성인대상으로 발달되면 소설로, 아동 대상이면 동화라고 보았다. 또, 최지훈(1981)은 동화란 아동이 읽을 수 있는 모든 서사적 문장으로서, 허구적이든 환상적이든, 우화적 전설적 신화적인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 두분류의 정의를 종합하면 동화는 아동을 위한 흥미있는 이야기로서 창작 전래되어온 것으로, 시적인 산문문학으로서, 현실과 환상을 담은 문학형태(강인연, 김영숙, 1992)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동화의 개념에 기초할 때, 전래동화는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옛날 이야기중에서도 동심을 기저로 한 이야기(공인숙, 유안진, 1994; 최윤식, 김기창, 1988에서 재인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성 짙은 창작 동화로서 옛부터 전승되어오는 이야기에 동화라는 의미가 가미된 동화를 전래동화(박화목, 1990)라고 한다.

이런 개념의 동화는 아동이 주대상이므로 동심을 기저로 한 예술성과 교육성, 윤리성, 단순 명쾌성, 및 이상성을 추구(최경희, 1994; 김지연, 1992)하기 때문에 6가지의 특성을 지닌다(최경희, 1994; 박화목, 1990에서 재인용). 첫째, 동화에는 실제 경험가능할 수 있거나 상상될 수 있는 소재와, 비현실적 환상세계도 많아, 이원수(1984)도 동화에는 환타지가 많으며, 공상적이며 초자연적 이야기라고 했다. 둘째, 동화의 주 독자가 아동이란 점에서 최대한 이상주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아동문학은 참사람됨의 추구라는 목적에서, 아무리 사실적이며 현실적인 소재로 하더라도 추악 거짓보다는 아름다움이나 참됨을 취해야 한다(박화목, 1990). 셋째, 동화에는 자연과의 교감이 존재하여, 아동의 의식세계에서 자연의 사물은 의인화되며, 자연과 조화된 가치관을 추구하여, 자연이나 사물을 인격화, 생명화시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넷째, 동화는 간결 단순하면서도 심오하다. 동화의 간결성 단순성은 만화나 옛이야기에 근원을 두기 때문이다. 다섯째, 동화의 내용에는 미래지향적

이며, 사랑과 모험, 권선징악의 주제에 진, 선, 미의 가치를 내재화 한다. 끝으로 동화의 향토성으로서, 민족의식등 공동체의식이 교육되기 때문이다.

## 2) 발달의 성격과 동화의 기능

아동은 가족 교사 및 또래로부터 직접 배우기도 하지만, 동화를 통해 간접으로도 배운다. 즉 아동의 성숙을 돕는 동화는 발달의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및 불가역성이라는 4가지 기본적 성격(유안진, 1987; 16~18)으로 그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첫째로 발달의 기초성(基礎性)으로 아동기는 성인기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라는 의미이다. 만 6세까지 성격의 기본틀이, 만 8세까지는 지능의약 80%가 발달된다는 학설외에도 창의성 사회성 도덕성등 거의 모든 인간특성의 기초가 아동기에 형성 발달되므로, 아동기의 경험은 성인기의 기초가 된다. 둘째로 특정 시기에 특정의 인간특성이 유독 집중적으로 급속히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설로서, 어떤 특정의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동기에 여러 번 존재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보충되기가 어렵다는 적기성(適基性)이다. 셋째 누적성(累積性)으로서, 한번 지체된 발달적 결함은 계속 누적되어 보다 심각한 결손으로 나타나므로, 초기발달이 더욱 중요시 된다. 끝으로 불가역성(不可逆性)으로서, 어떤 인간특성은 특별히 급속히 발달되는 최적기를 놓치게 되면 후에 완전보완 교정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달의 4가지 기본성격은 아동을 주대상으로 하는 동화가 1) 교육적 기능 2) 문학적 기능 및 3) 치료적 기능을 담당(유안진, 1995)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동화는 주대상자가 아동이므로 교육적 기능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아무리 문학성이 높은 동화라도 잘못된 정보 지식 원리 개념 또는 특정지위나 인종 성별에 대한 편견주입 비도덕적 가치나 태도등이 포함되었다면 비교육적일 수 밖에 없다. 동화는 어휘력 수리력 논리적 사고력 올바른 추리 다채로운 상상력 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인 바른지식 바른가치 온당한 태도 등의 인간됨을 돕는 양보 사랑 협동 등의 보편적 가치를 덕목으로 삼을 때 가장 효과적인 교

육적 기능을 한다. 또한 동화는 문학작품으로서 문학적 기능도 수행한다. 동심에 기초하여 흥미롭고 즐거운 미적 쾌감을 주는 동시에, 상상과 환상의 기쁨도 체험시키면서 승화된 정감에 감동되고, 감동에 의해 옳고 그름에 대한 자각을 갖게 한다. 동화를 통해 아동은 고상하고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고, 동화경험을 통해 개성 독자성 독창성을 발달시킬 수가 있다. 끝으로 아동이 실생활의 불만의 승화와 대리만족, 등장인물과의 동일시, 고백을 하게 되어 아동의 갈등 및 갈등해소의 상황을 현실적인 강요나 억압없이 경험시켜 아동의 성장발달에 기여하는 치료적 기능을 한다. 김경중(1990)은 동화의 전개 과정에서 반영되는 갈등단계와 갈등해소단계 사이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반응차이를 실험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갈등조성과 해피엔딩의 극적 전환을 통해 억압된 감정을 해소시키는 동화의 기능을 입증하였다.

## 2. 관련된 4편 동화의 공통점

아동은 동화내용을 사실 그대로 흡수하는 수동적 상상과, 무생물에 생명이 있다는 물활론적사고(유안진, 1989:34-49)로 등장인물의 의인화내지 동일시한다. 문학의 생명인 감동이라는 간접체험으로, 등장인물 특히 주인공과의 동일시에서 동화가 제공하는 가치를 내면화(최경희, 1994)하여 인격화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동화는 교육적 기능을 최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정선혜(1980)와, 공인숙과 유안진의 연구(1994)는 편견의 주입 또는 형성의 우려가 있는 국내외 전래동화를 아동기에 즐겨 읽고, 특히 아동이 선호하는 전래동화중에는 부정적 계모-계녀관계도 포함되었다. 실제로, 백설공주, 콩쥐팥쥐, 신데렐라, 장화홍련전은 친모아닌 타인이나 계모에 의해가 학대받는 계녀가 주인공인 내용으로서, 대부분의 아동이 읽었거나 읽진 않았어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국내외의 전래동화는 계모-계자녀간의 적응에 방해되는 부정적 혐오적 계모상을 형성시켰으며,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여성 주인공과 계모에 대

한 편견과 인지에 더욱 민감하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이런 동화를 통하여 계모에 대한 편견이나 요행, 신비한 도움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깊이 형성된 반면, 남학생은 흑백논리나 여성의 위상에 대한 편견이 더 많이 형성된 성차도 보였다(공인숙, 유안진, 1994). 또, 실제 동화중의 모-자녀관계의 분석 결과, 계모양육에는 뚜렷한 거부적태도를 보였고, 계모는 모두 명령지향형의 대화형식사용으로 계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고정 강화하기도 했었다(강어수, 1990). 더구나 이 연구에서 선정된 4편의 국내외 전래동화내용은 모두가 가해자로서 계모와 피해자로서 계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아동교육상 큰 문제점이 된다. 이런 이유로 아동의 동화독서 연구가 필요함에도 이 분야의 연구는 매우 부진하여, 아동문학 측면과, 아동상담 및 지도와 치료및 교육적 기능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3. 한국 전통문화에서의 부모상과 계부모상

### 1) 친애적 친부모상

전래동화인 콩쥐팥쥐와 장화홍련이 태어난 한국전통문화에서 부모상은 혈연중심적 유교가치에서 논의될 수 있다. 혈연중심의 가족윤리를 사회와 국가윤리로 확대시켜, 국가를 거대한 가족으로 보아, 국왕을 국부로 왕비를 국모라는 사고는 단일가족이 씨족문중으로, 더 크게는 국가로 확대된다는 발상이었다. 특히 부계혈연을 더 강조하여 데릴사위나 타성양자에 거부적이었던 전통문화(유안진, 1989:22)로 결과되었다. 따라서 삼강(三綱)과 오륜(五倫) 역시 혈연에 근거했거나, 혈연적 근거를 전제했음을 알 수 있다. 신체발부는 수지부모이니 불감해상 효지시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毆傷殘 孝之始也)'라는 효경(孝經)의 시작귀절은 부자는 혈연관계임을 전제했고, 소학등 아동교육서들도 명륜(明倫) 즉 혈연적 윤리를 밝히므로서 인간됨을 자식됨 즉 부모-자녀관계에서 해석했다.

이러한 혈연적 부모-자녀관계는 친애적 부모상을, 구체적으로는 엄부자모상(嚴父慈母像)으로 구별했다. 삼국유사(일연, 1979:22~36)에서, 고주몽등 건국설

화의 주인공들의 부친은 출생자일 뿐이나, 친모는 모성애로 양육했다. 그래서 생모는 성모(聖母)로서 묘사되었다. 고대 백제의 사모곡(思慕曲)은 호미와 낮의 차이로 비유하여, '호미도 날히언 마라난 낮가티 들리도 없으리이다. 아바임도 어이어신마라난 어마임가티 괴시리 없어라 (양주동, 4287;358~360)라고 하여 친애로움에서 차별적으로 보았으니, 따라서 자당 자친 자모로서 모성상과 훈육담당자로서 엄친 엄부 엄부형 등으로 위엄과 권위를 지닌 부성상을 고정화시켰다. 엄부자모상은 유교사회의 강한 부권과 부계혈연을 강조하면서, 현모양처로서 모성역할을 처의 역할에 선행시킨 점도 전통적 모성상을 자녀양육자로서 차별화했을 뿐이지, 친부 친모 모두를 친륜적 친애관계로 인식했다. 이런 긍정적 친애적 친부상도 계모형 작품(고영덕, 1991)에서는 심약 무능한 친부로 지탄되었다.

또한 혈연적 친부모상은 비혈연의 계부모상을 부정적 시각되게 했다. 유교윤리가 개인보다는 가족집단을 강조하여 혈연에 의한 가계의 무궁한 계승을 가치롭게 인정했기 때문에, 가계계승자확보는 모든 여성의 생애목표이자 절대적무였다. 그래서 여성에겐 양처보다는 현모이기를 강조했으니, 현신적 자모상으로 고착되었다.

김지연(1981)은 문학작품에 나타난 모성상은 왜곡된 여성 및 모성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비정상적 배경에서 출발하는 문학적 사건전개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했다. 부성상 역시 유교사회에서 강한 부권소유자였는데, 노영희(1992)는 한·일 가족소설에 나타나는 친부상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친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첫째로 자식들에게 무섭고 엄격하여, 모든 가족의견은 친부의 권위에 굴복되며 부-자간의 긴장관계는 부의 승리로 귀결되는 가부장적 부성상이다. 그러나 전통과 반서양화의 상징인 친부가 전통의 상징적 존재로서 유교도덕이나 가족제도의 단점을 비난하는 학교교육, 특히 불가항력적인 서양적 양학에 적대적 태도의 부성상도 있다. 또다른 친부상은 계모와 적출 사이에서 권위도 역할도 수행 못하는 수동적 이미지로서, 대표적 예로 장화홍련과 콩쥐팥쥐의

친부상이다. 장화홍련의 친부 배좌수는 마음으론 친딸을 친애하지만 후처가 겁나 체면만 앞세우다 두 딸을 잃는 심약한 인물이다. 콩쥐팥쥐의 최만춘도 계모의 완전주도로 자기존재마저 의식못하다가, 후처(계모 배씨)에게 버림받는 무능한 인물이다.

## 2) 부정적 계부모상

혈연가치를 강조해 온 한국전통문화에서는 비혈연적 부모가치는 상대적으로 경시 또는 혐오했다. 전래의 속담 민담은 계모상을 끊임없이 간악하게 매도해 왔다. 이는 부계혈연중심의 한국전통문화가 여성의 개가를 죄악시했던 점과, 개가녀의 자식에게는 한 품제로 임신 출세에서도 차별했던 계도와, 후처를 아꼈던 부권중심사고가 반영된 속언 등(유안진, 1991)에서도 발견된다.

계모와의 갈등관계의 문학작품을 고영덕(1991)은 계모형 소설이라하면서, 장화홍련전과 콩쥐팥쥐가 대표적 예라 했다. 전래동화에서 모든 계모는 계녀를 적대하는 악인이고, 반대로 계녀는 외모 성품등 전인적으로 출중 선량하여, 이를 시기하는 계모의 간악함이 복합작용하여, 더욱 악한 계모역할이 노출된다.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는 외모나 인격상 계녀보다 열등하여, 계녀를 학대함으로써 열등감을 보상하려 했다. 콩쥐팥쥐의 계모 배씨도 이유없이 계녀를 시기하여 부녀간을 이간질하고 콩쥐를 학대한다. 그러나 콩쥐는 항상 초인적 도움으로 감당 못할 책임을 잘 완수하자, 배씨는 콩쥐를 돕는 초인적인 힘 때문에 콩쥐를 더욱 시기 학대하는 악역으로 묘사되어, 계모는 모두 포악하고 독단적이나, 이를 견제할 친부는 모두 심약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의붓자식 키우느니 개를 키우지', '의붓아버지 아빈가 의붓어미 어민가'(송재선, 1993; 원영섭, 1993)등의 속담은 일관되게 의붓관계를 냉대, 차별, 불신및 불쾌 등으로 보았다. 이러한 부정적 계모상은 후처에 대한 남편의 애처태도가 계자녀의 시샘을 유발시키거나, 친부의 애정에 대한 계모와 계자녀의 경쟁심리에 기인할 수도 있을것이다. '늦동이 깨지면 지루동이(옹기동이) 얻게 된다' '딸이 귀여우면 후처로 주라' '후처에게 안빠지면 우물에도 빠진다.'는 속언

(유안진, 1995; 미발표자료)에서 후처보다 절대다수인 초취부인들의 염려와 적대감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부계혈연중심의 한국전통문화에서는 계부란 실로 해괴한 어휘로서 계모상에 준해서 혐오적으로 지각될 수 있다.

#### 4. 외래동화의 영향

계부모 특히 계모에 대해 아동의 부정적 편견은 혈연강조의 문화적 특수성과 편견내용의 전래동화에 대한 지식으로 형성, 선입견으로 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부정적 편견은 외래의 전래동화와 외·간접적 접촉으로 더욱 강화될 수가 있을 것이다. 꾸준히 팔리는 한국의 전래동화에는 상반된 특성의 주인공은 계녀를 학대하여 살해까지 하는 계모와, 온갖 학대와 수모에도 순종적 인고의 미덕을 갖춘 지극효성의 계녀이다. 장화홍련과 콩쥐팥쥐가 그런 예인데, 유입된 외국의 전래동화인 백설공주, 신데렐라와 헨젤과 그레텔도 유사내용이다. 이들 외래의 전래동화는 사악한 계모가 계녀를 살해하려 한다(Burr, Day, & Bahr, 1993)는 왜곡된 편견 또는 계모가 계자녀와 자신의 친자녀를 차별 대우했다는 부정적 편견(Lamanna & Riedmann, 1991)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계부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아동기에 이들 국내외의 유사내용동화와 외·간접적 접촉에서 더욱 강화됨을 증명한 연구는 아직 없으나, 비슷한 유추는 가능하다.

재혼가정의 계부모-계자녀간의 적응문제는 이혼이 보편화되어 온 서구문화권에서는 많은 연구되어 왔다. 재혼은 계부모와 계자녀간의 연령, 성별 및 상황등을 변수에 따라, 부모재혼시에 아동은 친부모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등 친부모-친자녀관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지각한다(Fine & Kurdek, 1992)는 연구결과와, 계모에 대한 선입견으로 계부모에게 일방적 반감을 표현(MacFarlane, 1970)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내외의 관련동화내용의 인지여부와 계부모상 및 친부모상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는 없고, 다만, 계모에 대한 계자녀의 부정적 태도가 아동의 연령, 성별, 상황등에 따른 차이를 보고한 연구(송영

규, 1992)와, 앞서 고찰한 몇몇 연구가 전래동화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밝힌바 있을 뿐인데, 이는 재혼부모들의 사생활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재혼부모와 계자녀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에 전래동화와 계모에 대한 편견을 조사한 공인숙과 유안진(1994)에 의하면, 대학생인 조사대상자의 3/4가 전래동화는 편견을 형성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들은 백설공주, 콩쥐팥쥐, 장화홍련전에서 계모-계자녀간의 적응을 방해하는 부정적 계모상을 연상했다. 특히 여학생이 계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여아주인공의 학대에 더욱 민감했다는 보고로서, 이혼과 재혼의 증가추세인 현실에 비추어 바른 계부모상 정립을 위해 전래동화의 개작이 필요하다.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이 연구는 서울시 소재 2개 초등학교를 유의표집하여, 2개 학년 9세(3학년)와 11세(5학년), 정상가정의 남녀아동 175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대상자 선정이유는 이 연령아동은 이 연구가 선정한 동화를 거의 인지하여, 친부모상 및 계부모상을 형성 간직하고 있으리라는 초등학교 5인교사의 자문과 연구자의 소견에 의거했다. 담임교사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재혼가정아동 3명은 자료처리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는 남아 90명(52.3%), 여아 82명(47.7%), 만9세아동 88명(50.9%), 만11세아동 85명(49.1%)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부의 경우 중졸이하 7명(3.4%), 고졸 32명(17.7%), 대졸 88명(50.3%), 대학원이상 46명(26.3%)이었으며, 모의 경우 중졸이하 12명(6.3%), 고졸 50명(28.6%), 대졸 81명(46.3%), 대학원이상 30명(17.1%)이었다.

### 2. 관련내용동화의 선정과정

이 연구의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내 4개 대형서점의 아동도서 판매자 7인에게 꾸준히 팔리는 국내의 동화를 편수와 관계없이 선정해 줄 것을 요청, 선

정된 18편의 동화를 아동문학가 10인과 초등학교교사 10인에게 친부모상과 계부모상의 차이나 유사 내용의 국내외의 동화를 선정해주도록 다시 의뢰하여, 백설공주, 신데렐라, 콩쥐팥쥐 및 장화홍련의 4편을 얻었다. 그러나 이 4편은 계모중심내용이나 계부상도 계모상에 준할 것이라는 선정위원들의 의견과, 연구자의 동일한 판단에 의하여 계부에 대한 문항도 포함시켰다.

### 3.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

선정된 4편 동화내용의 인지여부를 묻는 4개 문항, 친부모상 지각을 묻는 20개 문항, 계부모상을 묻는 문항 20개로 총 40문항의 질문지를 구성하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관련문항도 부가했다. 친부모상과 계부모상 척도는 부모와 아동의 생활과 밀접한 5개영역 즉, 훈육, 학교생활, 친구관계, 소비생활, 심부름등에 서 아동이 지각하는 온화-악독, 사랑-미움, 신뢰-불신, 진실-위선, 푸근-싸늘의 연속선상에서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아동학전공의 석박사과정학생 2명과 함께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Cronbach의  $\alpha$  계수 신뢰도는 친부모상 척도가  $\alpha = .80$ 이었으며 계부모상 척도는  $\alpha = .94$ 였다. 이조사는 1995년 5월 18~9일 양일간 대상아동들의 교실에서 석사학위소지 연구조원이 질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충분히 설명한뒤, 60분동안 응답하도록 하되, 수시질문도 받아 응답했다.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과 관련동화내용의 인지여부는 백분율 및 빈도분포를 사용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부와 모의 교육수준별 친부모 및 계부모상의 차이, 친부와 친모상의 차이, 계부와 계모상의 차이는 1집중과 일원변량분석으로 처리했다.

## V.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1〉 아동의 관련동화내용에 대한 인지는 어느정도인가?

이연구문제는 거의 모든 조사대상아동이 4편의 동

화를 읽었으며, 읽지 못한 아동이라도 그내용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동화 독서 경험 및 인지여부

동화명	구분	빈도(%)
콩쥐팥쥐	읽었다/안읽었어도 안다	170 (97.2)
	모른다/무응답	5 ( 2.8)
장화홍련	읽었다/안읽었어도 안다	86 (49.1)
	모른다/ 무응답	89 (50.9)
백설공주	읽었다/안읽었어도 안다	165 (94.3)
	모른다/무응답	10 ( 5.7)
신데렐라	읽었다/안읽었어도 안다	163 (93.2)
	모른다/무응답	12 ( 6.8)

〈표 1〉과 같이, 조사대상아동들은 장화홍련을 제외한 나머지 3편의 동화를 거의 모두 읽었거나, 읽지는 않았어도 내용은 잘 인지했다. 특히 콩쥐팥쥐는 대다수의 대상아동들이 읽었거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장화홍련은 조사대상자의 49.1%가 모른다고 대답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화내용 인지도를 조사한 연구(공인숙, 유안진, 1994) 결과, 장화홍련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는 보고와 함께, 우리나라 아동들은 국외동화 즉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에 비해 특히 장화홍련전을 잘 모르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동화를 읽었거나 읽지 않았어도 그내용을 아는 동화의 순위는 콩쥐팥쥐, 신데렐라, 그리고 백설공주의 순위였고, 이들 동화를 읽은 아동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아서, 남녀아동은 동화를 읽었거나 읽지 않은 아동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차에 관계없이 동화책을 접하게 해주고, 아동들도 성차와 무관하게 유사한 동화를 읽는다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 2〉 관련동화내용을 인지한 아동이 지각한 친부모상 및 친부 친모상은 어떠한가?

이들 동화내용을 인지한 아동이 지각한 친부모상의 평균점수는 20~100점의 점수분포에서 평균 86.81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조사대상 아동이 지각한 친부모상이 매우 긍정적이며, 또, 친부와 친모에 대해 자기 평균 43.22, 친부상은 43.69



점으로, 10~50점 점수범위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이 아동들은 친모 친부의 구분없이 모두 친부모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은 친부모 모두 다 온화 사랑 신뢰 진실 푸근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서 적어도 9세·11세 아동들은 긍정적인 친부모상을 소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3〉 관련 동화내용을 인지한 아동이 지각한 계부모상 및 계부 계모상은 어떠한가?

관련내용의 동화를 읽었거나 읽진 못했으나 그 내용을 아는 아동이 지각한 계부모상의 평균 점수는 20~100점의 계부모상 점수분포에서 51.7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문제 2에 나타난 친부모상 평균 점수 86.81에 비해  $F=3.91$ 로 유의수준  $P<.05$ 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이 결과도 관련내용을 인지한 아동이 친부모에 비해 부정적인 계부모상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마찬가지로 우리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결과에, 관련동화지식으로 강화되고 중복작용했으리라 해석된다. 또한 3편의 관련동화내용을 인지한 아동들과 4편 모두의 내용을 인지한 아동간의 계부모에 대한 부정적 지각의 차이는 10~50점의 점수분포에서 계부 계모상에 대한 평균점수가 각기 25.50과 26.63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값으로는 계부모상 지각점수는 중립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결과로서 관련동화내용을 아는 아동들이 계부모에 대한 지각정도가 우려했던 만큼 부정적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친부모상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계모와 계부 각각에 대한 반응은 계모상의 평균은 25.50, 계부상의 평균은 26.63점으로 각기 10~50점의 점수분포에서 낮은 점수이며 더우기 연구문제 2의 친부 친모상의 평균점수 43.22와 43.69에 비해서는 매우 낮았다. 앞의 계부보다는 계모에 대해 약간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편견내용의 4편 동화 모두가 계부아닌 계모가 사악하게 등장한 점을 미루어 이들 동화의 영향일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해석은 할 수 있다.

〈연구문제 4〉 관련 동화내용을 인지한 아동이 지각한 친부모상과 계부모상에는 유의한 성차가 있는가?

〈표 2〉와 같이 아동의 성별에 따른 친부모상 및 계부모상의 차이에서 오직 친부모상만이 유의한 성차를 보였다( $P<.05$ ). 즉, 관련동화내용을 인지한 여아가 남아보다 친부모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고, 남아는 계부모에 대해 여아보다는 약간 더 긍정적인 지각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런 결과는 여아가 계부모 특히 계모에 대해 덜 적응적이었다(권영혜, 유안진, 1993:101)는 결과와 일치된다. 또한 관련동화가 모두 여아를 주인공으로 한 점과, 여아가 남아보다 여주인공인 계녀와 동일시할 수 있고, 동시에 여아가 계모에 대해 더 정서적 감정적일 수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동화의 계모에 대한 편견과 인지 여학생이 더욱 민감했다는 선행연구결과(공인숙, 유안진, 1994)와 일치되는 결과이므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표 2-1〉의 친부모상 및 계부모상의 하위영역은 아동의 성별로 고찰할 때, 친부모상의 하위영역 중 미움-사랑에서 관련동화내용을 아는 남녀아동들도 남아보다 여아들이 친부모를 더욱 애정적으로 지각했고, 그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표현적 감정적이라서 친부모의 사랑을 더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계부모상의 하위영역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남녀아동의 구별없이, 아는 동화편수와 관계없이 관련내용의 동화를 아는 아동들은 모두 계부모를 표독 미움 불신 위선 싸늘함 등의 부정적으로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친부모상 및 계부모상의 차이

	남아(SD)	여아(SD)	t값
친부모상	85.34(10.31)	88.26(9.00)	-1.94*
계부모상	55.16(21.83)	51.33(19.71)	1.17

\*  $P<.05$

〈표 2-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친부모상의 하위영역별 차이

	남아(SD)	여아(SD)	t값
표독-온화	18.73(2.42)	18.92(2.09)	-.53
미움-사랑	17.72(3.06)	18.71(2.10)	-2.45**
불신-신뢰	16.69(3.51)	17.23(3.22)	-1.06
위선-진실	18.05(2.41)	18.43(2.27)	-1.05
싸늘-푸근	14.10(3.28)	14.99(4.13)	-1.54

\*  $P < .05$

〈연구문제 5〉 관련 동화내용을 인지한 아동이 지각한 친부모상과 계부모상에는 유의한 연령차가 있는가?

관련동화내용을 인지한 아동이 지각한 친부모상 및 계부모상에는 〈표 3〉과 같이 유의한 연령차가 없었다. 즉, 9세 및 11세 아동 모두 매우 긍정적 친부모상과 상대적으로 부정적 계부모상을 보였다. 이 결과는 비록 이들이 반응한 계부모상 지각점수가 절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들이 친부모와 비교하여, 계부모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은 저연령부터 계속 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표 3-1〉에서처럼, 친부모상의 하위영역중 싸늘-푸근에서도 유의한 연령차를 보였다. 즉, 관련동화내용을 아는 9세아보다 11세 아동은 친부모에 대해 유의하게 푸근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P < .0001$ ). 대체로, 9세 아동들이 11세 아동들에 비해 친부모상의 각 하위영역점수가 약간씩 더 높았는데, 유독 싸늘-푸근함에 서만 11세 아동들의 점수가 푸근함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것은, 성숙의 결과 부모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추후의 연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3〉 아동의 연령에 따른 친부모상 및 계부모상의 차이

	9세아동(SD)	11세아동(SD)	t값
친부모상	86.41( 8.97)	87.10(10.62)	-.45
계부모상	55.35(22.41)	51.46(19.10)	1.20

〈표 3-1〉 아동의 연령에 따른 친부모상 하위영역별 차이

	9세아동(SD)	11세아동(SD)	t값
표독-온화	18.91(1.98)	18.74(2.52)	.49
미움-사랑	18.48(2.39)	17.92(2.92)	1.39
불신-신뢰	17.21(3.42)	16.68(3.33)	1.02
위선-진실	18.33(2.11)	18.13(2.57)	.56
싸늘-푸근	13.42(4.21)	15.65(2.74)	-4.12***

\*\*\*  $P < .0001$

〈연구문제 6〉 관련 동화내용을 인지한 아동이 지각한 친부모상과 계부모상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부와 모의 학력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친부모상 및 계부모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각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부나 모의 학력에 관계없이 아동은 매우 친애적인 친부모상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정적 계부모상을 보였다. 〈표 4-1〉과 〈표 4-2〉에서처럼 부와 모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조사대상 아동에게 친부모와 구별된, 부정적 계부모상이 나타났다. 이는 교육받은 부나 모라도 자녀의 동화선택, 독서지도에 무관심하며, 편견주입이 우려되는 독서지도 및 교정지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유추는 교육수준이 낮은 부와 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된다. 즉 우리나라 부모는 자신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자녀의 동화선택에 무관심할뿐 아니라, 교육적인 동화의 선별기준을 갖지 않았으며, 동시에 동화의 내용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무관심하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친부 및 친모상은 부와 모의 차이가 거의 없어, 부와 모 모두 온화 사랑 신뢰 진실 푸근하게 친애적 즉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엄부자모상의 변화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친부모상과 계부모상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부나 계모에 대한 지각은 거의 차이없이 부정적이어서, 혈연중심의 문화잔재와 친애적부모상과 관련동화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 아동의 편견고정화에 다중작용을 했으리라 해석을 할 수는 있다.

〈표 4-1〉 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친부모상 및 계부모상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F
친부모상	93.00(0.00)	86.45(6.02)	86.91(13.56)	87.52( 8.21)	.11
계부모상	33.00(0.00)	45.44(16.83)	54.83(22.01)	51.92(20.65)	1.01

〈표 4-2〉 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친부모상 및 계부모상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F
친부모상	90.00(10.56)	85.95(15.10)	89.00( 7.54)	82.84(13.73)	1.15
계부모상	51.00(23.64)	48.00(16.24)	53.45(23.48)	52.08(21.78)	.21

## V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계부모-계자녀관계를 다룬 4편 동화내용을 인지한 서울시내 9세와 11세의 초등학교 175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친부모상 및 계부모상과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다음 몇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아동들은 신데렐라 백설공주 콩쥐 팥쥐 등 계부모-계자녀 관계를 다룬 동화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 내용의 외국동화를 국내의 전래동화보다 더 잘 인지하고 있어, 장화홍련같은 국내 전래동화는 유사한 내용의 동화이면서도 잘 모르고 있다. 둘째, 한국아동들은 편견관련 전래동화를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을 거의 알고 있다. 특히 가해자인 계모와 피해자인 계녀의 이야기가 내용임을 거의 알고 있다. 셋째, 편견관련 동화내용을 아는 아동들은 친부 친모에게 매우 긍정적인 부모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넷째, 친애적인 친부모상을 지닌 아동들은 부정적인 계부모상을 지니고 있어 친-계부모상간에 뚜렷한 편견을 지닌 채 성장하고 있다. 다섯째, 계부모관련 동화의 내용을 아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긍정적인 친부모상을 지니고 있다. 여섯째, 그러나 관련동화 내용을 아는 아동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매우 긍정적인 친부모상과 상대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계부모상을 지녔다. 일곱째, 관련동화의 내용을 아는 아동들은 부나 모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친부모상과 부정적인 계부모상을 지니고 있어,

부모는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자녀의 독서지도에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아동들의 독서지도대책이 필요하며, 증대되고 있는 아동상당과 지도 및 재혼가정형성이 필요한 가족사회의 변화추세에 대처하는 계부모-계자녀 관계와 계부모상에 대한 부정적 편견교정노력이 동화제작 및 각종 교재개발을 비롯한 아동 및 가족관련분야에서 시급히 요구된다.

이 연구는 계부모-계자녀관계에 대한 부정적 편견내용의 동화를 인지한 서울시내 3·5학년 175명 아동을 유의표집한 결과에 근거한 결론이므로, 이런 편견관련내용의 동화를 모르는 아동들과의 대규모 무선표집 비교연구의 후속이 필요하다. 이런 비교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부정적 계부모상형성이 전통문화의 영향인지, 편견관련동화내용 인지의 영향인지, 또는 이들요인의 복합상승효과인지 밝힐 수 있어, 이 연구의 결론은 더 신뢰로울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계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친부모와 동거중인 아동들만을 대상한 연구이므로, 계부모와 동거하는 아동들도 조사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제한점에도 이 연구의 결과는 계자녀아동의 생활지도와 상담의 기초자료로서, 특히 재혼가족형성이 필요한 편친가정아동지도는 물론 그 부모에게도 필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현대 및 미래사회의 가정변화추세에 대응하는 동화 및 다양한 부교재제작에도 필요한 자료라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강어수(1990). 동화에 나타난 어머니 - 자녀관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2) 강인연, 김영숙(1992). 유아문학교육 -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3) 고영덕(1991). 계모형 소설 연구 - 장화홍련전과 콩쥐팥쥐전을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공인숙, 유안진(1994). 전래동화와 대학생의 편견 형성 판단 - 백설공주, 콩쥐팥쥐, 장화홍련전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권 1호.
- 5) 권영례, 유안진(1993). 아동환경.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6) 김경중(1990). 동화가 지니는 심리학적 의미: 갈등 및 갈등해소에 따르는 아동의 반응.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 7) 김지연(1981). 명작속의 어머니상, 가정의 벗 157권. 18-19.
- 8) ——(1992). 아동문학작품의 주제경향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노영희(1992). 한일가족사소설속의 아버지상 - 島崎藤村과 廉想變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일본학 11권. 130-150.
- 10) 문예사전편찬회(1962). 문예대사전. 서울: 학원사.
- 11) 박화목(1990). 아동발달과동화연구 - 구연기법과적용자료 -. 서울: 장학출판사.
- 12) 서울대학교 아동학연구실 연구원들(1993). 토손자와 거북손녀. 서울: 샘터사.
- 13) ——(1994). 동글이의 세상구경, 서울: 샘터사.
- 14) ——(1934). 태양이와꾸북이, 서울: 샘터사
- 15) 송재선(1993). 우리말 속담 큰 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 16) 양주동(4287), 여요잔주, 서울: 을유문화사.
- 17) 원영섭(1993). 우리 속담 사전. 서울: 세창출판사.
- 18) 유안진(1987). 인간발달신강. 서울: 문음사.
- 19) ——(1991).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 출판부.
- 20) ——(1995). 아동문학작품은 아동교육용문학작품이어야 한다, 한국아동학회소식. 제8호.
- 21) ——(1995). 미발표자료
- 22) 이원수(1984). 아동문학입문. 서울: 웅진출판주식회사.
- 23) 이재철(1983). 아동문학개론. 서울: 서문당.
- 24) 일연(1979), 삼국유사(이민수역), 서울: 삼성문화문고
- 25) 임춘희(1994). 재혼가족연구의 시각과 연구성과에 관한 문헌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2권 2호. 93-108.
- 26) 정선혜(1980). 한국 유년 동화 연구: 한국 창작 유년 동화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1992). 한국동화상에 나타난 어머니상 - 전래동화와 해방전창작동화를 중심으로 -. 아동문학평론 62권. 71-79.
- 28) 최경희(1994). 동화의 교육적 응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9) 최운식, 김기창(1988). 전래동화 교육론. 서울: 집문당
- 30) 최지훈(1981). 동화의 조건. 아동문학평론, 20권, 10.
- 31) 통계청(1994). 월 15일세계가정의 날 세미나 자료, 우리나라의 가정 현황
- 32) Ambert, A.(1986). Being a stepparent: live-in and visiting stepchildre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795-804.
- 33) Burr, W.R., Day, R.D., & Bahr, K.(1993). *Family science*. C.A.: Brooks/ Cole Publisher Company.
- 34) Coleman, M., & L.H. Granong(1990). Remarriage and stepfamily research in the 1980's: Increased interest in an old family form.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25-940.
- 35) Fine, M.A. & L.A. kurdek(1992). The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stepfather and stepmother famili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725-736.
- 36) Hamilton, M.L.(1987). *Father's influence on*

- 
- children, Chicago : Nelson-Hall.*
- 37) Ingrassia, M., Springen, K., & P. Wingert(1994).  
What if the three pigs tried conflict mediation?  
*Newsweek*. Feb. 9th. 1994, 58-59.
- 38) Lamanna, M.A. & A. Riedmann(1991). *Marriages*  
*and families-Making choices and facing change-4th*  
*ed.* C.A. : Wadsworth Publishing Co.
- 39) MacFarlane, A.(1970). *The family life of Ralph*  
*Joselin-a seventeenth century clergyman.*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